묘전 스님(승가원자비복지타운 원장)
장애인 편견 없어지는 날까지
쉼없이 정진하겠습니다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1월 1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76호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공동경비구역에 부처님 가르침 전한다

조계종 군종교구, 내년 JSA 법당 불사 시작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2016년 공동경비구역(JSA) 내 법당불사를 시작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2월 10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공동경비구역(JSA) 내 법당 신축을 의결했다.

신축법당은 JSA 안보견학 교육장 옆에 위치하게 되며 고려시대 전통을 되살린 목조건축물로 지어진다. 법당은 25평 규모로 신축법당 내에는 아미타 삼존불과 순국선열 위패를 봉안하는 무량수전이 자리한다.

그동안 불교계는 JSA 내 종교 중 가장 열악한 시설을 지니고 있었다. 개신교는 교회가, 가톨릭은 공소가 JSA 내에 있었다. 기존 법당으로 활용되던 영수사 건물은 막사를 개조한 것으로 외부에서는 법당으로 보이지 않았다.

군종교구 측은 "전통사찰 형식으로 지어 외부에서도 불교법당을 알아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JSA 근무 군장병들과 연간 수만명의 국내외 안보현장 견학자들이 한국전통문화의 정수인 불교문화를 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어 "또한 법회를 봉행하며 DMZ 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불교 홍포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군법당 시설 중에는 무량수전과 함께 종각도 들어설 예정이다. 일반인들도 출입 가능한 JSA 법당에서 군종교구는 부처님오신날 등에 평화기원 행사와 함께 타종식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군종교구는 2016년도 사업예산안으로 총 21억 8800만원을 심의 의결했다. 교구 일반회계가 16억 8800만원에 불사 특별회계는 5억원이다.

특히 군종교구는 2016년 중점사업으로 군승 포교활동을 강력히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발생한 자살 · 총기난사 사건 등의 예방차원에서 군승들의 부대 위문활동이 확대된다.

또 신규사업으로 간부와 군가족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는 점도 눈여겨 볼 만 하다. 군종교구는 현재 군간부를 대상으로 신행지도 등에 나서 매년 간부불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각종 군법당 불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으로 군법당 표준설계안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설계비용을 아끼고, 군법당 신 · 증축을 원활히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 중 5억 원 책정해
무량수전 · 종각 등 25평 규모
군승 위문활동 · 계층포교 강화
조계종 총본산 불사에도 동참

끝으로 현재 조계종이 추진하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에도 군종교구도 전 군법당이 1억원을 모연해 동참하기로 했다.

군종교구는 "2015년 다사다난했던 군포교 현장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불법홍포에 나서고자 한다"며 "노후법당 개선, 부대 이전 등의 변화로 인한 법당 신축, 다양한 군계층 포교 등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군종교구는 지난 12월 3일 '군장병 위문품 보내기 운동' 4차 사업으로 전군 77곳 부대에 보온용품 핫팩 25만개를 전달했다. 군종교구는 후원계좌와 ARS를 개설해 상설운영하고 있으며 사찰과 단체, 개인 불자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060)700-0108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은 12월 16일 조계사 일주문에서 오는 25일 예수님오신날을 맞아 트리 전통등 점등식과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우리 모두가 부처이고 예수"

조계종, 16일 트리 점등… 축하 메시지 발표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 종교간 평화 염원이 담긴 전통등 트리가 불을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2월 16일 오후 5시 30분 조계사 일주문에서 오는 25일 예수님오신날을 맞아 트리 전통등 점등식과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의 탄생을 깊은 마음으로 축하드린다"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는 말씀처럼 서로를 마음의 온기로 대하면, 갈등과 폭력을 벗어나 공감과 화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은 더없이 성숙진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모두가 부처님이고 예수님"이라면서 "모두가 마음의 등불을 밝혀 서로에게 빛이 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자승 스님과 총무부장 지현 스님(조계사 주지), 사회부장 정문 스님을 비롯해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박남수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신정훈 천주교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총무 등 이웃종교인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나종민 종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조계사 일주문 앞에 들어선 점등된 전통등은 트리등, 눈사람등, 동자동녀등, 팽귄등, 눈결정 및 별모양등 등 총 16점이며,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오는 12월 26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종단협, 내년 예산 12억 원 확정

징용 조선인 희생자 위령재 봉행키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는 2016년도 예산을 일반회계 7억4430만원, 특별회계 4억7300만원 등 총 12억173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돼 희생된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 추모위령재를 봉행키로 했으며, 내홍으로 총무원장이 구속된 태고종의 회원 자격도 정지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종단협은 제19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 중국대회, 해외입양아 및 고려인 청소년 초청 한국불교문화체험사업 실시, 성지순례 등을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정했다.

또한 종단협은 조세이탄광 희생자유족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 30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탄광 추모비 앞에서 위령재를 지내기로 했다. 조세이탄광은 1942년 수몰사고로 강제징용 조선인 136명을 비롯해 183명이 희생된 곳으로 종단협은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수몰된 유골발굴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종단협은 태고종의 종단 분규로 역할과 의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불교의 위상이 실추된 점에 따라 2016년 6월까지 자격을 정지키로 했다.

김주일 기자

불서 13종 2015 세종도서 선정

정찬주 〈불국기행〉 등 수필 분야 4종 올라

종교 6종, 詩 2종, 청소년 1종… 전반적 빈약

정찬주 작가의 〈불국기행〉(작가정신 刊)이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수필부문에 선정됐다. 이 책의 저자인 정찬주 작가는 〈불국기행〉을 통해 불교문화의 과거를 살필 뿐만 아니라 불교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헤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팔에서는 석가족 '슈라즈 샤카' 씨를 만나 석가모니의 후예의 역사를 듣고, 남인도에서는 힌두교에 밀려 쇠퇴하는 불교를 목격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불교 기반이 단단하고 활동 영역이 넓은 스리랑카에서는 담불라 승단 종정스님인 수만갈라 스님을 만나 인터뷰하고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서는 운강 석굴에 몰려든 참배객을 보며 어깨를 펴고 있는 중국 불교의 모습을 우리 불교의 현재와 비교했다. 저자의 이런 통찰은 이 책에 깊이를 더하며, 독자가 다양한 문화적 사유를 하도록 도왔다는 호평을 받았다.

세종도서 선정은 크게 문학나눔과 교양부문으로 나뉜다. 문학나눔 서정 목록을 살펴보면 시집분야서 총 135종이 선정됐는데 불서 및 불교작가가 선정된 것은 문태준 시인의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창비 刊)과 문정희 시인의 〈응〉(민음사 刊) 등 2종뿐이다. 소설 분야도 72종이 선정됐는데 그중 불교관련 도서는 김선우 작가의 〈발원〉(민음사 刊)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수필분야는 총 111종중 4개인데 정찬주 작가의 〈불국기행〉을 비롯해 함영 작가의 〈공양간 노란문이 열리면〉(참글세상 刊), 강석경 작가의 〈저 절로 가는 사람〉(마음산책 刊), 원철 스님의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불광 刊) 등이다. 아동 청소년 분야에는 총 173종이 선정됐는데 불서는 오미경 작가의 〈직지 원정대〉(휴먼 어린이 刊)뿐이다.

교양부문 선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교 분야이다. 총 23종이 이름을 올렸는데 그중 불교관련 도서는 6종이다. 〈꼬마달마의 마음수업〉(이지형 지음, 청어람미디어 刊), 〈불자로 산다는 것〉(도일 지음, 불광 刊), 〈붓다와 다시시작하는 하루〉(불도징 지음, 평단 문화사 刊), 〈붓다의 옛길〉(삐야닷시 테라 지음, 달물 刊), 〈생태문제에 종교가 답하다〉(길희성 외 14인 지음, 운주사 刊), 〈스승과 제자, 함께 걷다〉(성재헌 지음, 조계종출판사 刊) 등이다.

한편 세종도서 선정은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양질의 도서를 심사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도서는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병영도서관 2,600곳에 배포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종단 화합조치法' 내년 3월 종회 상정

조계종 종헌특위, 12차 회의서 결의

통합종단 출범 이후 징계자 사면 및 종단 화합을 모색하기 위한 '종단 화합조치 특별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특위(위원장 초격)는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회의에서 스님들은 지난 10월 개최한 종단화합조치 특별법 제정 공청회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공청회에서 제안된 특별법 제정, 호계원법 내 특별재심청구 사유 확대, 종헌 128조 개정 등 다양한 사면의 방법을 통한 화합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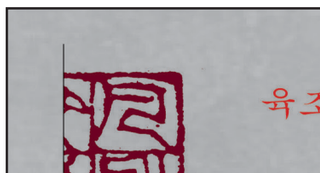
또 이날 회의에서 스님들은 원로회의가 요청한 △종헌개정안 인준 시 원로회의 의원 2/3 동의 △원로회의법 내 원로의원 면책특권 조항 신설 △원로의원 임기 만료시 자동으로 명예 원로의원 위촉 △출가자 연령 제한 50세 규정 폐지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원로회의의 제안인 만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행 승려법에서 징계 관련 조항을 분리하는 방안, 선거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보완하는 방안, 의제법과 법계법 개정 등 2016년 입법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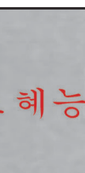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076호 INDEX

시방세계 5
2015년 10대 뉴스 및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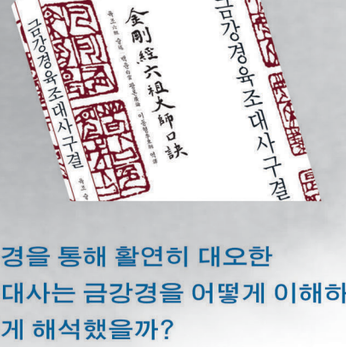
강의실중계 8



윤성식 고려대 교수
'부처님 부자 수업' 강연

한국불교 토픽 36선 24
임진왜란과 의승군의 활약

육조 혜능선사가 풀이한 금강경!



금강경을 통해 활연히 대오한
육조대사는 금강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했을까?

자신을 깨달음으로 이끈 금강경에 대한
혜능의 해설과 근현대 중국 선불교의
종장인 백운선사의 광론이 금강경에 대해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이끌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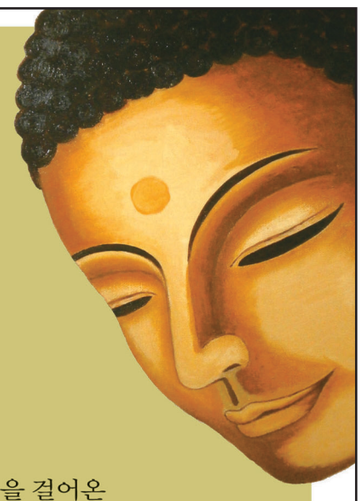
육조 술 · 백운 광론 · 이동형 역/신국판양장/336쪽/값 15,000원

금강경육조대사구결

金剛經六祖大師口訣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절망 속에서 피어난,
행복한 마음공부 이야기!

아픔을 다스리는
마음공부



한평생을 불치병과 함께하며 굴곡진 인생길을 걸어온
저자의 힘겨운 삶의 여정과 고통을 딛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찾도록 해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최혜자 지음/신국판/384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